





월지관 (月支館)

전시관으로 옹관고분을 형상화한 건물로 마한 54개 소국 중 으뜸인 월지국에서 취한 이름으로 사무실과 영상실이 있다.

남북초당 (南北草堂)

관람객이 쉴수 있는 공간으로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뜻으로 남북초당으로 명명되었다. 가운데는 한반도 모양의 분수가 있어 운치를 자아낸다.

몽전 (夢殿)

몽전은 남해 해신이 현종에게 준 암시를 우리 영암군민에게도 주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이름지었다. 내동리 초분골 고분의 발굴과정과 우리나라 묘제의 변천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발굴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남해망루 (南海望樓)

올라서면 삼포강 물줄기가 한 눈에 들어오고 고개를 들면 멀리 월출산, 무안 몽탄, 나주 동강 등이 바라다 보인다.

국토미니어처 연못, 레일바이크